율곡 사상과 미래, 그 적용과 방법

리더십의 보물창고

현대의 리더십 이론은 거의 서양에서 연구된 것들이다. 전통 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 이론들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어딘가 낯설지 않다. 그 이유를 곰곰이 따져 보다가 무릎을 '탁' 쳤다. 지금까지 동양철학을 연구한 학자들의 내용이 따지고 보면 거의 다 리더십에 관련된다. 곧 고대 중국의 제자백가 사상을 비롯하여, 유가의 경전, 우리 한국의 옛 문헌들도 거기에 해당한다. 쉽게 말하면 전통 학문은 대개 '제왕학帝王學'과 관련이 있는데, 국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원리와 방법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이는 유가만이 아니라 도가나 법가의 사상도 모두 궁극적으로는 그 목적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다.

그 가운데 유가의 고전을 보면 대부분이 성군聖君이 되는 것과 관련 있는데, 그것은 유가 사상이 왕도정치王道政治를 이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예악형정禮樂刑政은 그것을 위해 제도적으로 갖춘 것이고, 『대

학』의 8조목(격물·치지·성의·정심·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8가지 조목)은 훌륭한 리더로서 성군이 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며, 『중용』은 그것을 철학적으로 뒷받침한 책이다. 물론 다른 경전도 이처럼 규정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조선 선비의 저작들도 리더십의 보고이다. 가령 퇴계 이황李滉(1501~1570)의 『성학십도聖學十圖』나 율곡 이이李珥(1536~1584)의 『성학집요聖學輯要』도 선조에게 훌륭한 리더로서 성군이 되라고 올린 문헌이고, 남명 조식曺植(1501~1572)의 「신명사도神明舍圖」는 리더의 역량과 관련된다. 내면에서는 성인이요 겉으로는 왕이어야 하는 내성외왕內聖外王과 자기를 수양하여 남을 다스리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유가의 가르침을 따르니 당연한 결과이다.

여기서 수기치인과 리더십의 관계를 살펴보자. 수기는 리더의 역량을 키우는 일이고, 치인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영역이다. 이를 다시 『대학』의 8조목에 대입해보면, 격물格物부터 수기까지가 전자에 해당하며, 제가齊家부터 평천하平天下는 후자에 해당한다. 본서에 다루는 가정교육은 바로 제가에 해당한다. 물론 가家는 원래 대부가 다스리는 작은 정치 영역이지만, 조선의 선비들이 적용할 때는 왕가나 사대부의 가정에 한정했다. 조선의 통치는 중앙집권적 관료제여서 대부의 지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통치하는 지역이 없었다. 율곡 선생의 『성학집요』의 내용 구성은 바로 이 『대학』의 체제를 따랐다.

우리는 여태 그것을 모르고, 아니 리더십을 도입한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해석할 능력이

없어서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였다. 다행히 요즘은 전통에서 리더십의 사례를 찾아보려는 저작물이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다. 가령 '세종대왕의 리더십'이나 '이순신의 리더십' 따위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기존의 그것을 수정·보완하거나 그보다 더 진척하는 데는 심도 있는 연구와 실증적 사례가 필요하다.

미래와 전통사상의 적용 방법

21세기에 과거의 가치나 교육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위험이 따른다. 문화와 가치관이 다를 뿐만 아니라 계속 변하고 있고, 사회·경제·정치적 체제도 다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철학적인 면에서 볼 때 절대적인 가치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모든 문화와 가치는 상대적이다.

만약 다수가 인정하는 무엇, 이른바 '절대적 가치'도 알고 보면 단지 형식적이며 공통점이 있는 문화나 가치일 뿐이다. 그것은 가령 '살인은 나쁘다'라거나 '착하게 사는 게 좋다'라는 등인데, 이는 매우 형식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다. 살인에도 동기가 있고, 착하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거의 그것이 온전히 오늘날 우리의 답이 될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수많은 고전 해석서의 존재와 종교에서 신학의 변천을 설명할 길이 없다. 이는 전통사상만이 아니라 외래사상이나 문물을

두고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런 배경에서 필자는 한국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항상 이 문제를 고심해 왔다. 그래서 '우리철학'의 방법론을 탐구하였는데, 여기에는 다섯 가지 모델이 있다. 우선 모든 모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필수 모델로서 우선 해당하는 철학은 우리의 현실 문제를 두고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전통사상을 계승하거나, 셋째 전통사상을 현대에 맞게 특성화하고 극복하거나, 넷째는 외래사상을 수용하고, 끝으로 외래사상에 대응하는 모델이 그것이다. 여기에는 비교와 분석, 재해석과 비판 등이 동원된다.

사실 고대의 불교나 유교는 다 외래사상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까닭은 다 이런 방식으로 과거의 '우리철학'을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그것을 달리 토착화라 부른다. 그래서 인도나 중국과 다른 우리만의 불교나 유교 철학이 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우리가 전통사상이나 외래사상을 대할 때도 이런 방식을 적용한다면, 21세기의 '우리철학'이 될 수 있다. 전통사상을 미래를 위해 재해석하여 계승하거나 특성화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율곡 사상과 미래

율곡 이이의 교육론에 관한 학계의 연구는 많은 편이다. 대다수의 연구는 이이 선생(이하 선생으로 약칭)의 논리에 따라 그것을 풀어 설

명하는 방식이다. 조금 진전된 연구는 현대적 의미나 의의를 덧붙이는 정도이다.

이런 방식은 학문적으로 사상을 소개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현대인이 그대로 실천하기에는 거북한 점이 적지 않다. 앞에서 말했듯이 문화와 가치의 상대성 때문이다. 지금은 조선 중기가 아니다. 설령 거기에 보편적 가치와 원리가 있다 해도, 현대적 적용에는 적절한 해석과 방법이 필요하다. 더구나 보통 사람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는 더욱 문제가 많다. 전통에 대해서 잘 몰라서 선생의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도 그러하지만, 비판하거나 재해석할 안목이 없기에 누가 전해주는 대로 따르거나 그마저도 지쳐서 그만두기도 한다. 무엇보다 선생의 가르침이 좋은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얼마나 유용한지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실 선생의 가르침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따로 있다. 그 배경에는 성리학性理學이 있기 때문이다. 선생의 가르침을 이해하려면 성리학의 기본 논리를 알아야 하고, 선생이 그것을 계승하거나 심화하거나 특성화하는 지점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현실에 먹힐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비록 이론의 논리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현대인 다수가 믿고 있는 세계관과 다르면 설득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가치관 또한 다르면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

사정이 이렇다면 우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선생 가르침의 무엇에 호소해야 할까? 그것은 다름 아닌 유용성, 달리 말하면 실용성이다. 선생의 교육적 이론이 현대의 인간을 유능하고 바람직하게 이끄는 데

효과적이라면 강력히 지지할 수 있다. 가령 종교에서 사람을 가르칠 때 거기서 주장하는 내세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도,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선행善行을 유도할 수 있는 것과 흡사하다. 보통 사람이 선생의 이론이 근거하고 있는 성리학의 세계관과 논리를 모르거나 따르지 않아도, 선생이 제시하는 교육적 방법을 적용해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선생이 따르는 성리학과 방향이 다른 학문이나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도 유용할 수 있다. 보편화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방법은 조선 후기 학자들이 성리학을 극복하면서도 유학의 근본 취지를 계승하는 데서 보인다. 가령 최한기崔漢綺(1803~1879)나 심대윤沈大允(1806~1872)의 학문이 그것인데, 성리학이 아닌 자신들의 기철학으로서 유학적 논리나 이론을 재구성하였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것이 앞서 소개한 전통사상의 극복과 특성화의 모델이다.

선생의 교육적 담론도 이런 방식을 통하여 현대화하여 미래 교육에 적용할 수 있다. 선생이 말한 교육 관련 문헌인 『격몽요결擊蒙要訣』, 『학교모범學校模範』, 『소아수지小兒須知』 등만이 아니라, 교육과 전혀 무관하게 보이는 『성학집요聖學輯要』와 각종 상소문도 그렇다. 후자는 특히 국왕 곧 리더로서 갖추어야 하는 자질과 해야 할 일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물론 선생의 교육론은 현대의 그것에 비추어 한계가 있다. 현대의 교육학은 하나의 경험과학이자 분과학문으로서 오랫동안 전문가의 실험과 검증 그리고 토론을 거쳐 확립하였다. 해서 단편적으로 보이는

선생의 그것이 현대 우리의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없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해당하는 영역의 전문적 기술보다 일반적 진술일 가능성이 있다.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나치지 않게 연역해보겠다.

율곡 사상과 리더십

수기치인修己治人을 내세우는 유학의 특성상 율곡 사상은 대부분 리더십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모두 교육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곧 가정교육을 리더십과 관련시킴에 있어서 교육과 관련된 사상은 물론이고, 리더십과 관련된 내용을 교육의 담론장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유학 자체가 온통 리더십과 관련되어서 그것을 매개로 교육적 담론으로 전개할 수 있다는 뜻이다. 본서의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다. 목차에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듯이, '바른 부모 되기', '자녀와 올바른 관계 맺기', '바르게 키우기'는 리더십에 있어서 각각 리더의 개인 영역으로서 역량 강화, 구성원과 관계 영역으로서 소통과 상호 관계, 조직 영역으로서 성과달성과 관계된다. 유학의 영역에서는 맨 앞은 수기修己에, 맨 뒤의 하나는 치인治人과 논리가 통한다. 가운데는 양쪽이 겹친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영역에는 또 많은 하위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본서에서 다루고자 하는 작은 주제들이다.

사실 선생이 『성학집요』에서 강조하는 내용의 체제는 대개 『대학』

의 논리와 일치하는데, 이는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제반 역량 곧 자기 학습, 성찰, 판단력, 롤모델 등과 관련이 있다. 물론 그 내용의 일부는 관계 영역의 소통과 교감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선조에게 올리는 각종 상소에서 선조의 태도를 비판하는 부분과 각종 대책도 이와 관련이 있다. 더구나 『격몽요결』 등에서 강조하는 오륜 등도 관계 영역에서 재해석 가능한 부분이다. 그 속의 교육과 관련된 많은 담론은 가정교육에서 성과달성을 위한 방법이다. 물론 이 성과는 일반 기업의 그것과는 분명히 다르지만, 가정교육 차원에서 꾀할 수 있는 일이다. 입지立志로서 동기부여와 비전 제시, 혁구습革舊習로서 혁신과 변화, 거가居家·접인接人·처세處世에서 영향력과 주도성 또는 변화에 적응, 오륜에서 역할 강조 등을 풀어낼 수 있다.

다만 선생의 주장이나 의견은 현대 리더십 이론에 맞추어 조리 있게 진술하지 않고 유학의 수기치인의 논리에 따른 것이어서, 그 내용을 재구성하고 부족한 부분은 필자가 선생의 말에서 현대의 관점으로 연역하였다. 이것은 선생이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현대 우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삶에 유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옛날의 사상은 아무리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도, 내가 잘 씹어서 먹지 않으면 나의 피와 살이 될 수 없다. 필자의 역할은 단지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요리사의 그것일 뿐이다. 이해하여 적용하는 일은 각자의 몫이다.